

경제

휘발유값 또 뛰기 시작

중동지역 긴장감 고조 ... 광주 5일째·전남 4일째 강세

광주 최고 1999원·전남은 2085원까지

지난해 10월말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휘발유 가격이 올들어 다시 뛰고 있다.

광주지역의 휘발유가격은 10일 오후 8시 1900.47원으로 지난해 12월 19일 1800원대(1899.78원)로 떨어진 이후 23일만에 다시 1900원대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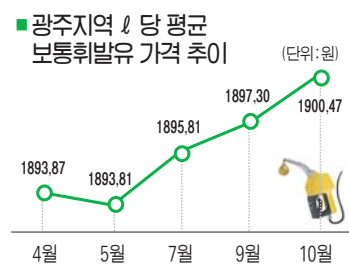
10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픈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광주지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8월 1900.47원, 전남은 1917.46원으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는 5일째, 전남은 4일째 강세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지난 2일 8월 1893.

17원에서 3일 1893.96원, 5일 1893.81원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 이후 5일 연속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6.66원 올랐다.

전남은 지난 6일 1914.71원을 저점으로, 7일부터 4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광주 동구의 8월 평균 판매 가격이 19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북구 1906원, 서구 1899원, 광산구 1896원, 남구 1889원 순이었다.

상표별로는 농협오일이 8월 1914.00원으로 가장 높았다. GS칼텍스는 1일 1903.74원에서 꾸준히 올라 1910.82원에 거래됐고, SK에너지는



1900.02원으로 올들어 처음으로 1900원선을 넘어섰다. S-오일은 1888.55원, 현대오일뱅크는 1888.15원으로 거래됐다.

주유소별 최고가는 광주 북구 S주유소가 1999원으로 2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남은 이미 2000원을 훌쩍 넘어 20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기름값이 새해들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대외란 제재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공언함에 따라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물가가 들쭉이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올라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대립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판매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만일 전쟁으로까지 확대된다면 국제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만큼 물가관리에 도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UVO는 첨단 전자제품

기아자동차는 10일(미국 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2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차세대 북미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UVO(유보)'를 비롯해 다양한 차용-IT 분야 신기술을 선보인다. 사진은 박람회 참가자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을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아자동차는 10일(미국 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12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차세대 북미 텔레매틱스 서비스인 'UVO(유보)'를 비롯해 다양한 차용-IT 분야 신기술을 선보인다. 사진은 박람회 참가자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을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광주시 'LED 투광기' 개발 완료

'Made In Gwangju'상표 붙여 미국에 수출

광주시는 미국에 수출할 LED(발광다이오드) 투광기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LED 투광기는 기존의 400W급 메탈할라이드 투광기를 200W급으로 대체한 것으로, 전력 소모량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절반에 그치는 데 반해 광속과 광

효율 등 품질은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메탈할라이드 제품은 6개월 주기로 고가의 렌즈를 교체해야 할 뿐 아니라 제품의 수명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LED 투광기는 렌즈 교체 없이 5년간 품질보증기가

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투광기를 미국 L&S DBS(빌딩안전국)로 보내 검증을 거친 뒤 수출 협약을 체결한 CBS 그룹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CBS 그룹과 52억5000만 달러 규모의 LED 투광기를 수출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LED 투광기에 'Made In Gwangju'상표를 붙여 수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지난해 노사관계 안정

고용노동부, 파업 65건·근로손실 42만9000일

지난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1987년 민주화운동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파업은 65건, 근로손실일수는 42만 9000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24.4%와 16% 감소한 수치로, 파업 발생은 1987년 이후 가장 적었고 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는 1996년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24.7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6.8일, 2008년 기준) 보다 낮았다.

상급단체별 파업건수는 민주노총 50건, 한국노총 10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건수는 76건에서 50건으로 34.2% 감소했고 근로손실일수는 48만4000일에서 27만3000일로 43.6% 줄었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조 “실습생 제도 폐지” 촉구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전국급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실습생 제도 폐지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회는 이날 “실습생 대상 정규직 채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실습생 대상 정규직 채용 발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기업의 도의적·사회적 책임 면에서 환영한다”며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여전히 침묵해 여론마우미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실습생 제도는 선진국에 없는 낙후된 제도”라며 “1차적 책임이 사측에 있지만, 이를 감시 개선하지 못한 노동조합도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광주지회는 “사측의 이번 실습생 채용 발표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심야 근무에 대한 개선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결정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1368가구 분양

쌍촌동에 건본주택

호반건설(대표이사 최종만)은 10일 광주 서구 쌍촌동에 광주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분양에 들어갔다.

(조감도) 공급 물량은 첨단2지구 4블록과 8블록 2개 단지에 1368가구다. 4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25층 총 9개동에 전용면적 84㎡ 63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8블록에는 지하 1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면적 84㎡ 733가구가 공급된다.

이 단지는 첨단2지구 내 최초 기간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시기는 4블록 2014년 2월, 8블록 2013년 12월 예정이다.

단지 인근 '빛고을로'가 개통하면 시청 등 광주 중심권역까지 차량으로 10분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 동림IC, 제2순환고속도로, 호

남고속도로 등을 통해 각지로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

4블록, 8블록은 단지 옆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공원, 첨단산업단지가 인접해 생활편의시설이 우수하다.

대다수 가구에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Bay) 광면설계를 적용한다. 또 가구당 방을 4개씩 배치하고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수요자의 입맛대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키즈카페 및 북카페를 조성하고 독서실, 동호회실, 실내 골프 연습장, 휘트니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은 광주의 마지막 대단위 택지지구 첨단신도시의 민간 첫 분양”이라며 “특히 1368가구 전체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84㎡로 구성돼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문의 062-383-10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법인 주가 하락세

23개사 회전을 유기증권 264.97%·코스닥 548.27%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주가가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23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상장주식 회전을유기증권 264.97%, 코스닥시장 548.27%로 조사됐다.

이는 유기증권시장이 상장주식 1주당 약 2.6배, 코스닥시장이 약 5.5배 매매가 이뤄졌음을 뜻한다.

시장 전체 상장주식 회전을유기증권과 비교하면 유기증권시장은 7.99%포인트 높지만, 코스닥시장은 43.04%포인트 낮았다.

주가등락률을 보면 유기증권시장에서 대우에이텍(187.00%)과 대우

신소재(69.03%), 화천기공(13.54%) 등 3곳을 제외하면 보해양조(-21.64%), 로케트전기(-35.06%), KPX 화인케미칼(-69.40%), 부국철강(-23.23%) 등 나머지 11개사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도 회전을 상위 종목인 폴리플러스(-41.18%), 파루(-58.13%), 비엔비서원(-45.89%), 제이웨이(-14.97%) 등 7개사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행남자기(50.85%)와 와이엔텍(12.36%) 등 2곳만 오름세를 보였다.

회전을 상위 종목은 유기증권시장에서 대우에이텍(1601.09%), 대우신소재(631.28%), 보해양조(375.23%) 등의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폴리플러스(1533.18%), 파루

(1522.26%), 비엔비서원(1007.56%), 제이웨이(264.3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53.22 (+26.73)
▲ 코스닥지수	525.74 (+5.46)
▲ 금리 (국고채 3년)	3.38% (0.00)
▲ 원·달러 환율	1156.50원 (-7.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726-중-9062호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빠르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된다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회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원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에는 인체의 밖을 순환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인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중성이 심한 경우는 대증치료를 통해 신체중성을 우선 개선 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한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 울허 화동탕으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요산, 심담기허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림탕, 위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양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2) 음허화동(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변비가 생기며 간혹 몽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3) 심당허겁(心虛虛怯)
몸이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4) 간양상행(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경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금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증 등에서 볼 수 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인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매표리 센터가)

경희한의원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